

익산시, 지역발전 공조체계 구축

도의회와 정책간담회... 현안사업·정책방향 의견교환 국립감염병 연구소 유치 등 당면과제 공동해결 한목성

익산시가 지역 정치권에 국립감염병 연구소 유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에 나섰다.

익산시는 25일 정현을 시장과 유희숙 부시장, 김대오, 김정수, 김기영, 최영규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 주요 현안사업과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필요성과 앞으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도의원과 집

행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국소단점의 사업설명 및 협조사항 당부에 이어 참석자차 토론을 통해 내년도 전북도 본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사업을 중점 건의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전략과 방향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립감염병 연구소 유치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 철도 건설사업 등이 논의됐으며 금미고

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라북도 공모에 선정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어 국립화리질원료원 유치, 춘팔선 지방도 승격, 노후 농공단지 기반 시설 조성, 백제왕궁 미륵사지 세계유산길 지방도(722호선), 전북디자인센터 및 보석마을 지중화사업, 장잠마을 환경오염사고 종합대책,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사업 등에 대해 앞으로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익산시와 도의원은 올해부터 분기마다 정책간담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시정의 주요사안에 대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당면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 청소년 복지증진 공로 인정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철원)가 청소년 정책 활성화 및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25일 익산시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회장 김윤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청소년 정책 활성화 및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5일 익산시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박철원 위원장, 오임성 부위원장 및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위원 총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지역의 청소년 정책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의원 발의하여 지역의 청소년 복지 및 정책의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위원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현장방문하여 익산 청소년들이 올바른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및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익산시의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정책자문단 발족... 첫 정책세미나

공공기관 유치방안 마련 토론회

군산시가 시 정책 수립과 현안 해결을 위한 공식 자문기구인 정책자문단 구성을 완료하고 첫 번째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는 25일 지역 대학교수와 기관 대표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위촉하고, 첫 세미나로 정부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 군산 유치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나눴다.

이날 행사는 군산 문화예술콘서트홀

토리(구. 수협창고)에서 열렸으며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장과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주동현 차장, 군산대학교 최연성 교수 등 관계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1부는 정책자문단 발대식이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건국대학교 소순창 교수의 '제2공공기관을 통한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기초 발제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이전 추진 필요성과 유치전략 마련 등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 토론에는 군산시 정책자문단장

인 최연성 군산대 컴퓨터정보통신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형주 군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고석주 군장대 보건사회학부 교수, 강병수 어울림(유) 대표 등 자문위원이 참여해 공공기관 이전 준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주제발표자인 국토연구원 조관기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방안과 이전기관 직원에 대해 타지역과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김관곤 기자



군산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33일간 공모했던 2020 군산시 인구정책 UCC 영상공모전 5개의 수상작을 선정해 발표했다.

군산시 인구정책 UCC 영상공모전 수상작 선정

군산시가 인구정책 UCC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 발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33일간 공모했던 2020 군산시 인구정책 UCC 영상공모전 5개의 수상작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군산시 인구정책 및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모주제는 저출산 대응 일자리 분야, 정주여건 등 인구문제와 관련된 분야로 공모기간동안 총 16편의 작품이 응모했다.

심사는 소관부서 사전심사를 거쳐, 지난 24일 개최된 제3회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최종심사가 이뤄졌다. 최종심사는 고유성, 독창성, 활용성, 적합성,

작품성의 5개 평가항목에 근거한 심사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다.

심사결과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3편으로 총 5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해나의 행복일기, 우수상은 작은 소중한 나의 별, 장려상은 무엇이든 물어보살 '우리아이는 누가 보살펴주나요?', 군산시 믿고 출산 따블로 가!, 그 삶에 군산이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7월 11일 제9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로 개최되는 '군산시 인구정책 시민원탁토론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각 10만원의 군산시 상품권과 시장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 법정비화 조짐

익산시의원 "과다지급"·익산시 "사실무근" 팽팽 긴장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을 둘러싼 익산시와 익산시의원 간의 대립이 법정비화로 비화될 조짐이다.

익산시는 임형택 시의원이 제기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과다지급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법적대응을 고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원가(정방식 변경으로 재료비를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는 월간 처리물량에 당 계약단가를 적용해 총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재료비를 별도로 지급할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재료비를 매월 정산해 지급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는 당 처리단가로 계약해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료비 등에 대해 항목별로 정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계산한 매년 3억8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도 정산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6년 재계약 이전 1억7880만원이던 재료비가 4억2380만원으로 상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료비가 2억4800만원 올라간 대신에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등 제경비에서 4억5500만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임형택 시의원은 익산시의 행보에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2020년 9월 재계약을 앞둔 시점으로 원가(정방식) 기관의 문제점이 아니라 당시 담당공무원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원가(정방식) 과정에서 재료비가 과대지급된 것이라면 환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 '청년식당' 문 열어

익산시에 시설된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식당이 문을 열었다.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이사장 안윤숙)에서 운영하는 청년식당은 25일 익산시 신동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급식 지원을 시작한다.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건강한 밥상을, 익산 시민들에게 로컬 푸드로 만든 건강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광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원과 경기도 양주의 아동보호치료시설 나사리청소년의집이 컨소시엄을 구성, 지난해 9월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를 설립해 청년식당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운영중인 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기관은 지나친 규제에 청소년들이 기피하는 등 자립 효과가 높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청년식당은 자기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극대화하는 사회적경제 지원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제8회 군산시간여행축제 주전부리 부스운영자 모집

군산시는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제8회 군산시간여행축제에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추억의 먹거리를 제공할 주전부리 부스 운영자를 모집한다.

군산시간여행축제 주전부리 부스 운영자 신청은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모집규모는 총 11개 부스이다. 모집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이며 운영메뉴는 호리개떡, 솔밭 순대, 빵튀기, 보떡, 옛날과자, 추억의 달고나 등 1980년대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메뉴로 한정한다.

운영 장소는 축제장 주 행사장 내이며, 입점 조건은 1일 5만원으로 3일간 총 15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참여자 선정방법은 메뉴의 독창성, 적합성, 대중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선정할 예정이다.

/*군산=김관곤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